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태양을 머물게 한 사람 II

(여호수아 10:1~15)

이종윤 원로목사

I. 사실인가, 느낌인가

기브온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태양이 머물렀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 시려 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우선 네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시적 표현이라는 해석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해가 진다는 것은 과학적 표현이 아니다. 태양은 떠오르거나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삿5:20).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이용하신다는 시적 표현이다.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둠이 덮히는 밤이 오게 되니 여호수아로서는 안타깝기만 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사 짧은 시간에 하루 종일 싸운 분량만큼의 큰 전과를 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시적인 표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 같은 느낌이나 시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법이 아니다. 이미 우박의 기적이 있었다. 만일 태양과 달이 머문 것이 시적 표현이라면 우박은 무엇인가?

2. 실제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고보다는 일광 시간을 길게 연장시키셨다는 해석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광 시간을 단순히 길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마치 여름날 낮 시간이 겨울철보다 긴 것처럼 그리고 북극 지방에서는 여름철엔 오후 10시가 가까워도 책을 읽을 만큼 낮의 길이가 길 듯이 해가 지지 않으므로 일광 시간을 조정하신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II.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 - 17).

1.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여호수아는 진정 큰 종이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태양도 달도 머물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큰 종들이 되어야겠다.

2. 여호수아의 담대한 신앙 용기를 배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12절).

여호수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이다.

스탕달은 그의 연애론에서 “이탈리아인의 용기는 분노의 발작이고 독일인의 용기는 순간적 도취이며 스페인 사람들의 용기는 자존심의 발로다”라고 했다. 이것은 용기를 남용한 이들을 비꼬아 한 말이다. 진정한 용기란 결코 분노의 발작도, 순간적 도취의 산물도 아니며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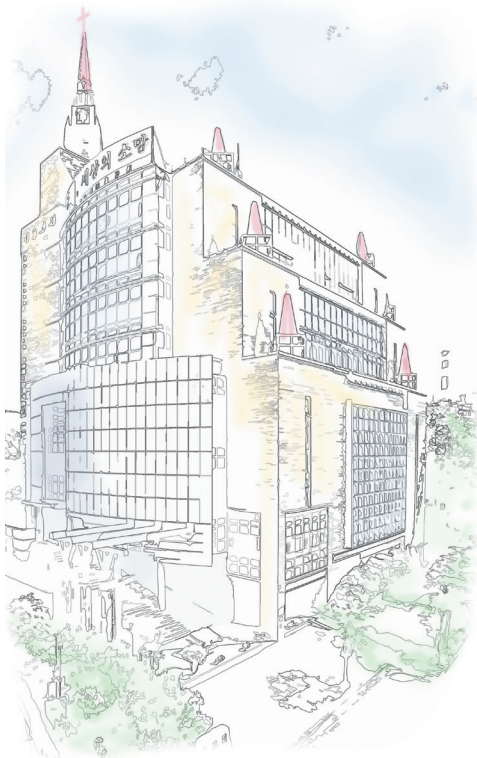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이를 금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전도를 계속했다.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것은 분노의 발작도, 순간적 도취도, 자존심의 발로도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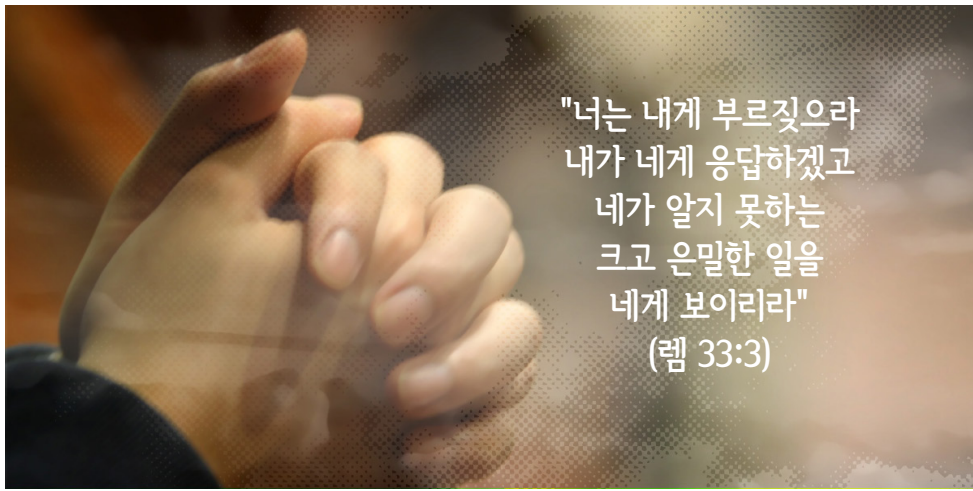
모세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된 85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건넜으며 결국 가나안 정복의 기수가 되었다.

3.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여호수아도 자기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실성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는 기브온 사람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켰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받은 여호수아가 다음 날 아침 원수들을 공격하기 위해 야간 행군을 하며 군대를 이동하고 전투에 임한 것에서도 우리는 그의 신실성을 볼 수 있다.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 복은 승리였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삶을 살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2018년 8월 13일(월) ~ 8월 18일(토) 6일간
새벽 5시30분 ~ 6시 /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 회복의 결정적인 시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에 본안소송 항소심과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져분 심리에 교회의 총력 모으기 위해 교회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란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협력을 부탁 드린다.

장로 수련회 · 청년부 수련회

장로 수련회 : 8월 14일(화) / 아가페타운
청년부 여름수련회 : 8월 13일(월)~15일(수) / 아가페타운

이제 2018 여름 수련회·여름성경학교가 장로 수련회와 청년1·2부 연합 수련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된다.
장로수련회(당회서기: 노문환 장로)는 8월 14일(화)아가페타운에서 열리며 청년1·2부 연합 수련회(청년1부 회장:조재석 성도, 청년2부 회장 : 임종현 집사)는 8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아가페타운에서 갖는다.

장로수련회는 이중윤 원로목사의 특강과 기도회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청년부는 심우진 목사를 강사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열왕기하 20:5)"이란 주제로 열린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게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도 무사히 은혜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0순 장로 외 3인이 제기한 『즉결심판청구』 모두 기각

지난 7월 17일,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측 최0순 장로 외 3인이 송인권 장로 외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즉결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는 최0순 장로, 최0진 장로, 이0만 장로, 김0준 장로 4인이 송인권 장로, 최광성 장로, 이관규 장로, 김시환 집사, 차영도 집사, 손태현 집사, 송인수 집사, 이병천 집사, 이남성 집사, 이종형 집사, 김남욱 권사, 김찬진 권사, 성기연 집사 등 13인을 상대로 제기한 『즉결심판청구』에 대하여 해당 헌법권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시킨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 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36호

사 건 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 0 장로 외 3인이 서울교회 송인권 장로 외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즉결심판청구

즉결심판청구인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 0 장로 외 3인
1. 최 0
2. 최 0
3. 이 0
4. 김 0

주 문 : 1. 2. 3. 4.

1. 즉결심판청구인들의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동건·신소영(6/10) 오후근(6/10) 김선이(6/10)
주화인·하규미(6/10) 정준혜(6/10) 황선희(6/10)
최근자(6/10) 홍성미(6/10) 황선희 홍성미 정준혜
장윤기·노애리 이병천·조미영 최지훈 곽 숙 오천수
김찬웅 한대석 박승기 정성우 김영희·이현정 최원자
김은숙 하인선·남태순 정수길 김선희1 노문환 안인호
윤요섭·안재희 송인덕 한길동 이우진 김일순 무명 4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Bus Metro Walking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 B.M.W. 운동 카풀carpool 운동에 동참합니다!

2018 청년부 여름수련회
치유하시는 하나님

2018.08.13(월) - 15(수) 청평 아가페타운

"너는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잊게 하리니 내가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5]

2018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장유안 (초등부 회장)

이예은 (유년부 회장)

이재산 (초등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참가하게 되면서 저의 생활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 여름성경학교 참가였습니다.

막연히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올 줄은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과 죄를 크게 뉘우치고 미디어의 실체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율동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더 하나되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맛있고 훌륭한 뷔페 식사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손꼽아 기다리며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유다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도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와 같이 천국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신나는 물놀이와 다양한 게임도 너무 즐거웠고 맛있는 간식과 식사 그리고 박미혜 권사님과 김연경 셰프님의 환상적인 조식뷔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성경학교에서 즐거운 게임과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다음 겨울성경학교에는 더욱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가봤던 성경학교라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엄마의 강력 추천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인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보고 나의 장래 희망과 같은 건축가란만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니... 제목이 잘못 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2박 3일이 지나고 나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발랏, 도비아, 계셈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52일만에 높이6m, 길이 4.6km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고, 그게 가능한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돕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김석주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미디어의 실체라는 것도 재미있게 들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만 보던 영화와 게임, 노래 등이 다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라니... 만약에 내가 여름성경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오늘도 사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을 것이다.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마음을! 다지고! 말씀을! 지키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아멘!!"

힘껏 외친 구호와 찬양은 집에 와서도 계속 부르게 되고 재미있었던 여름성경학교가 다시 생각난다. ^^

말씀도, 공동체 훈련도, 수영도 정말 재미있었다. 여름성경학교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이번 겨울성경학교도 기대가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로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서울교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1)

윤왕모 군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서울교회가 처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서울교회가 처한 아픔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 사역중인 군 선교 현장 또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악화되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 역시도 사역에 적잖은 마음의 부담과 위축을 겪기도 하지만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사역에 정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군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귀한 헌신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들 교회들은 로마의 정복자들에게 천연자원을 착취당하고 심한 학정에 시달리면서 가

난이 밑바닥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교회의 형편 역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서울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 서울교회의 회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서울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서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서울교회의 비전2020운동

- ① ② 지난 7월 28일 (토) 제 3보병사단 23연대 신병훈련 교육대 훈련생들을 위한 진중세례식
- ③ 2010년 12월 군선교의 밤

등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8.14(화) 2018 장로수련회와 기도회 개최에 배 설교 및 특강을 한다.

■ 연주회 : 8교구 장운식 집사 『2018 장운식 기타 리사이틀: 줄리아니의 밤』 8월 23일 (목) 저녁 7시15분 성암아트홀(논현동)

■ 금주의 식사 : 초계탕
노승헌 집사
박정인 집사·성수영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8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모이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충만케 하시어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2. 청년1·2부 여름수련회와 장로수련회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3.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건이 신속하게 인용되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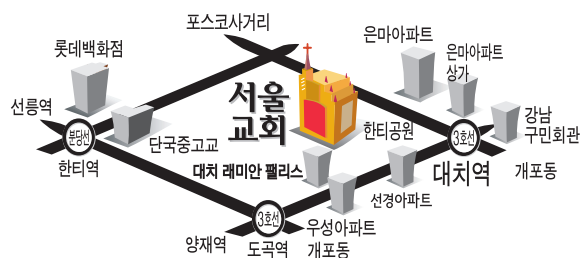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8월12일	주일	렘 1-3		삼상 1-7	
8월13일	월	렘 4-6		삼상 8-14	
8월14일	화	렘 7-9		삼상 15-19	
8월15일	수	렘 10-13		삼상 20-24	
8월16일	목	렘 14-17		삼상 25-31	
8월17일	금	렘 18-21		삼하 1-6	
8월18일	토	렘 22-24		삼하 7-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